

# 목양칼럼

## 가을에는

김현승 시인의 '가을 기도' 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肥沃)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겸허한 기도와 한 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져 가는데  
우리의 기도와 한 분을 향한 사랑도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만난 자리가 있습니다.

갯세마네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겸손한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흐르던 곳이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성공, 나의 건강, 나의 재산, 나의 명성.....  
끝없이 이어지는 '나' 가 멈추어지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가장 큰 갈망이 된다면  
우리의 가을도 자기를 비우는 겸허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계절이 될 것입니다.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中文 (347)965-0343 Fax (718)358-7789 http://www.kapcq.org

<b>원로목사</b> 장영춘	<b>담임목사</b> 김성국
<b>부목사</b> 김도현/OPEM (347)450-7736	김재형 (347)761-7663 오인수 (267)205-1295
<b>전도목사</b> 이진은 (646)220-8324	<b>다민족선교사</b> 송요한 (917)940-0596
<b>전도사</b> 고부영/1교구 (917)423-5298	계화자/2교구 (646)641-8944 이양미/3교구 (516)717-8720 함미희/4교구 (917)359-2857
황혜옥/중국교포, 중국어부 (718)825-6969	천위지/중국어부 (347)965-0343
진기용/OPEM대학부 (201)835-3166	
<b>교육전도사</b> 소유영/행정 (917)318-7030	
이명옥/영어부 (646)327-6438	강지영/유아부 (718)801-2339 이소영/유치부 (347)610-5399
차병화/중등부 (703)819-8785	배인규/청년부 (917)736-3429 최진식/ (646)887-7419
손요한/한국어부 (929)204-6868	손요한/한국어부 (646)789-1118
<b>직원</b> 정진규/관리 (646)651-7255	홍현숙/서무 (201)759-0820 Shen de Guia/OPEM
<b>찬양대</b> 1부 예배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예배 / 호산나 찬양대
3부 예배 / 시온 찬양대	4부 예배 /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 소유영	지휘 / 최진식
반주 / 최미희 이승은	반주 / 송소영
	반주 / 윤원주
	반주 / 김정윤 임세현



주후 2017년 11월 5일  
제 43-45호

## 주일예배

1부 / 오전 8:30 김재형 목사  
2부 / 오전 10:30 오인수 목사  
3부 / 오후 12:15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80	1,3부 / 다같이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2,4부 /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송동울 장로 2부 / 정길표 장로 3부 / 김수산 장로 4부 / 차상남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출애굽기 11:1-12:14	사회자
찬양 CHORUS	놀라운 사랑 그 사랑 내 생명 예수의 피땀에 없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임마누엘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시온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SERMON	내가 피를 볼 때에	김성국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259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620 / 2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김성국 목사
* 표는 일어섬		

## 주일 저녁 예배

장년 성경 공부

오후 4:00 (11/5/17)	사회: 홍승룡 장로
예배선언	사회자
기도	이소영 전도사
광고	사회자
말씀	송요한 목사

**마태복음 6:9-13**

**주기도문(VIII)**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화답송	주의 기도	글로리아싱어즈
찬송	주기도문	다같이
축도	김성국 목사	

## QPEM English Service

12:00pm	Rev. Peter D. Kim
Praise	Congregation
Scripture	Presider
	Isaiah 40:1-8
Prayer	Dn. Jay Youn
Sermon	Peter D. Kim

**“Celebrating the Reformation”**

## Богослужени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8:30am	Пастор В.Сон
Хвала	Все вместе
Слово из Библии	сестра Т. Лян
	к Евреям(Heb.) 11:1-6
Молитва	брат В. Лян
Проповедь	пастор В. Сон
	“Ибо Твое...”

## 수요 기도 예배

오후 8:00 (11/8/17)	사회: 김재형 목사
예배선언	사회자
경배와 찬양	다같이
광고	사회자
성경봉독	사회자

이사야 40:29-31

찬양	찬양대
말씀	첸위지 전도사

**새 힘을 얻으리니**

**从新得力**

찬송	354	다같이
결단기도		다같이
축도		김재형 목사

## 中文堂崇拜

早上 9:30/下午 4:00	司会:陈玉捷传道
赞美	会众
经文	司会
	太(Mt.) 23:25-36
证道	常达传道
	谁有祸了? (III)

### 새가족 환영회

5과 그리스도인 안에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 2017년 교육 컨퍼런스

강사: 김성국 목사, 정주성 목사  
11/11(토) 오전 8:30

### 성례 예배

11/19(주) 저녁 예배

## 교회소식

11월 감사의 달 - 여호와께 감사하라

###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 친교실에 새가족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두 초대합니다.

### 행사 및 모임

11/5(주) 씨머타임 해제, 장년 성경 공부 주기도문(VII), 선교회 월례회	11/10(금) 구역예배
11/11(토) 교육 컨퍼런스	11/15(수) 신학교 찬양 축제
11/23(목) 추수 감사의 밤	11/19(주) 성례 예배
	11/26(주) 추수 감사 예배
	11/29(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 예배

### 알림

1. **저녁 예배** 시간에 장년 성경 공부 '주기도문 VII' 마지막수업이 있습니다.
2. **새로운 장로 장립자 명단** 차상남 최원일 함용식 남형욱 채영주 최시몽 황태현
3. **2017년 교육 컨퍼런스 안내** 1) 일시 11/11(토) 오전 8:30~오후 4:00 2) 주제: 청교도와 교사 3) 강사: 김성국 목사, 정주성 목사 (뉴욕 나무교회 담임) 4) 대상: 교회학교 교사및 교육에 관심있는 성도
4. **전도 폭발 기도 후원자 모임**이 11/14(화) 오후 7:45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문의: 오인수 목사, 최원일 장로
5. **학습, 유아세례, 입교, 세례 교육 장소 안내**  
2부 예배 후(오전 11:45) 210호(학습), 213호(세례)  
4부 예배 후(오후 3:15) 303호(학습), 305호(세례) 중 택일  
\* 유아세례 교육이 오늘(11/5) 오전 11:30에 병아리반(B06)에서 있습니다.
6. **추수 감사절 만찬 기증** 11/23(목) 추수감사의 밤 터키 만찬을 위한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문의: 각 교구장
7. **2017년 가을 건축 바자 총 수입**은 \$80,865.22 입니다.
8. **교직원 수련회**가 11/6~7(월~화)에 있습니다.
9. **11/11(토) 토요일 총동원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 1교구 (다음주: 2교구)
10. **가족기부 장학기금** 김수산 장로, 김재욱 장로, 김명자 전도사, 최전상 집사, 최여순 권사, 최시몽 장로, 김주섭 청년, 정재영 청년,

### 새가족

이의진 (마리아 2F8) 손향선 (에스터 2F12)

### 교우소식

- 병 환** 허성자 권사(4F4)께서 골절상으로 파빌리온 양로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박연화 교우(1F1)께서 엘머스트 호스피스 병동 319호실에 입원하였습니다.
- 점심제공** 오늘 점심식사는 새로운 장로 임직자들이 제공합니다.

### 금식기도자

월 / 정소연 하진주 정주영 팽정은  
수 / 이숙희 채현주 박대희 권정자  
금 / 정주영 한선일 채현주 박대희

주 / 정은숙 이양미 배윤영

화 / 김영화 이금순 박석미

목 / 정은숙 채현주 이숙희

토 / 김근희 한선일 채현주 이양미

헌금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15	
	4부	오후 02:00	
	오후	오후 04:00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4:00	
	러시아어	오전 08: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영어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어부실(지하)
유아부		유아부실(2층)
유치부		유치부실(2층)
유년부		유년부실(4층)
초등부		초등부실(3층)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오후 12:15	중등부실(4층)
	토요모임 오전 9:00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오후 12:15	고등부실(3층)
	금요모임 오후 6:30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유아부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중등부실

## 출석

1부 예배	302	러시아어 예배	27	영어부	18	중등부	61
2부 예배	308	청년 선교부	84	유아부	24	고등부	52
3부 예배	311	주일 저녁 예배	564	유치부	27	청년 대학부	41
4부 예배	194	새벽 예배	904	중국어 교육부	14	교회 학교 예배	409
영어 예배	168	수요 기도 예배	198	유년부	99	주일 낮 장년 예배	1670
중국어 예배	276	새가족 환영회	12	초등부	73	주일 낮 총계	2079

## 11월 봉사위원

책임 장로: 전성호 장로

헌신기도	최원일 장로	함용식 장로	남형욱 장로	채영주 장로
책임권사	최용숙 권사	김경미 권사	송경순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이정숙 오영자 홍지혁	임승룡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김희은 오성태 송현규 김선희 장지숙 정민영	김서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김선의 조한결 신예지 윤국현
헌금 위원	윤영신 심인보 조규옥 윤순자 김정란 차광혁 채송자 강석춘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조인범 김미권	심원희 오성태 고종빈 나인애 김희은 박석미 한원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신예지 조한결 윤국현 박재상 소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김지한	윤지현	박철홍

화요일 새가족 환영: 브리스가, 아글라 주일식사: 루디아 (다음주: 교포부)

##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퀸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미미션인터네셔널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신학교) / 김현(캄보디아국제신학교)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은순(탄자니아) / 박선숙(미국 장애인) / 최득신 (프랑스) / 김명희(미국 할렘) / 지승남(미국 캠퍼스) / 최동훈(케냐)

이번 주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문답 14)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월 - 사도신경 / 찬송가 438장 / 소요리 문답 / 전도서 6장 1-6절

행복하시나요? 올해 한국의 한 여론 조사에서 낙태 찬성률이 50%, 반대가 30% 정도라  
고 합니다. 7년 전만 해도 반대가 50%, 찬성이 30% 정도였는데 말입니다. 그만큼 시대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증거이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죽는 아이들을 안타까워  
하시며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4)라  
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내 모양이 다 이루기 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  
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세우신 것만 봐도(시 139:16) 뱃속의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낙태된 자보다 더 불행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3,5).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숨 쉬며 살  
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사는 자들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데 복음을 듣고도 기쁘고 감사하기보다는 염려와 근심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가정  
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를 누리며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화 - 사도신경 / 찬송가 38장 / 소요리 문답 / 전도서 6장 7-9절

만족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먹고살기 위함입니다. 물론  
더 큰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열정을 쏟아붓는 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분  
들도 먹어야만 일할 수 있고, 열심을 다할 수 있기에 단순화해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  
기의 입을 위함’ (7)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이 만족할 줄을 모른다는 것  
입니다(6). 더 많이, 더 좋게, 더 빨리, 더, 더, 하는 것이 우리의 입이고 배입니다. 그런 면  
에서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궁핍하  
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빌 4:11)라는  
바울의 고백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심지어 그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3)고  
고백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13) 오직 예수 그리스  
도 안에만 만족이 있습니다. 만족을 넘어서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  
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수 - 사도신경 / 찬송가 543장 / 소요리 문답 / 전도서 6장 10-12절

역사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역사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싫어하  
기도 합니다. 이 역사라는 단어를 ‘과거’ 혹은 ‘경험’ 으로 바꿔보면 어떻게요? 과거를 돌  
이켜보는 것, 나의 경험 가운데서 아쉬웠기에 배워야 할 것은 배우고 잘한 것은 더 개발  
하는 자제가 지혜로운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미래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큰 도움과 힘의 원천입니다. 전도자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10) 태양 아래

에서 일어나는 일 중 새로운 것은 없고 다 반복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는 이 모든 것을 다 보셨고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10). 우리 주님이 가장 강하십니다. 가장  
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더욱  
문고 구하며 주님의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목 - 사도신경 / 찬송가 491장 / 소요리 문답 / 전도서 7장 1-10절

‘아 옛날이여!’ ‘그때 참 좋았지!’ 하면서 과거가 그리우십니까?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  
행복한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힘이 나고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렇게 옛날만을 그리워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쩍이나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10). 왜 그럴까요?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이고, 미래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가 중요하기 때문입  
니다.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1)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8) 라고  
고백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텐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라는 호소입니다.  
“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  
려가노라” (빌 3:14) 고백하는 바울의 기도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 안  
에 거하기를 힘쓰고 하늘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금 - 사도신경 / 찬송가 524장 / 소요리 문답 / 전도서 7장 11-22절

남의 말이 두려우십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하는 말들 때문에 힘드십니까? 전도자  
는 명쾌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21).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닫고 살라는 뜻이 아니라 그 ‘모든’ 말들에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신경 쓰다 보면 가까운 사람도 못  
믿게 되고, 매사에 사람들의 눈치만 보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는 바로 다음 구절에서 ‘너  
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지 않았느냐(22), 너의 종도 네가 완벽하지 않기에 너에 대해서 말  
을 할 것이다(21). 이 모든 말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지  
나치게 두려워하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데  
힘을 다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토 - 사도신경 / 찬송가 144장 / 소요리 문답 / 전도서 7장 23-29절

왜 이 땅에 악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악을 보고도 가만 두시는 하나님을 도  
저히 못 믿겠다’ 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를 찾는 자였습니  
다.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  
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25) 하여 연구하여 지혜를 깨달았습다(27). 그가 세상만  
사를 보면서 가슴 저미게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을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죄를 낸 것이니라” (29). 이 세상에 악  
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내 삶에 있는 아픔도 하나님께서  
바라는 바가 전혀 아닙니다. 이 모두 사람들이 정직을 버리고 죄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하  
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자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 참 생  
명, 진리, 길이 있습니다. 이미 정답을 주셨는데 자꾸만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는 노력  
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 가정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